

장성교육청, '신(新) 선비를 키우는 문향(文鄉)교육' 장성 탐방

“아는 만큼 더 보이고,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운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음식으로 교직원 대상 장성 문화 탐방 활동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은 2일, 전입 교직원 및 희망교원 26명을 대상으로 특색교육인 “신(新) 선비를 키우는 문향(文鄉)교육”과 정관스님과 함께 하는 우리 고장 장성 탐방을 실시하였다.

장성 문화 탐방 활동은 “아는 만큼 더 보이고,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해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필암서원을 탐방하면서 장성 선비들의 정신과 얼을 배우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장성교육지원청은 매년 역사교재를 발간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돕고 있는데 이번 체험 코스도 역사교재에 포함된 탐방지

를 선정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됐다. 그리고 기후환경 생태문화 조성을 위한 사찰음식의 대가인 백양사 천진암 정관스님과 음식철학과 연결되는 슬로푸드의 정신을 소개하는 이론교육과 음식시연, 발우공양 체험도 함께하는 영혼을 보양하는 식사도 하였다.

정관스님은 “음식은 단순히 맛을 탐닉하고 포만감을 느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것으로 한 그릇의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 하나하나의 땅과 바람과 햇빛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대지와 우주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마음으로 소중하고 감사하게 한 그릇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장성교육지원청 이재양 교육장은 “정관스님과 함께 나의 몸 상태를 알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한 음식과 음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학생을 대하면 아토피 치유의 특색교육이 있는 감동을 실현하는 장성교육지원청이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입교사는 “장성 인근 지역에 살면서 장성지역에 선비정신이 깃든 세계적인 문화유적지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백양사에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백



학봉과 고불매, 비자나무숲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을 비롯하여 함께 걸어서 색다른 문화체험을 했고 특히, 유명한 정관스님의 시그니처인 표고버섯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였다.

장성=김수권기자

전남생명과학고, 교내 벚꽃 버스킹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정태원) 학생회는 2일(화)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

생을 대상으로 벚꽃 버스킹을 개최하였다. 벚꽃 버스킹은 올해 처음으로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학생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교우관계를 돈독히 하며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하였다.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정태원 교장은 “학생들이 금번 벚꽃 버스킹을 통하여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지며 학교생활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목포정명여고, 2024학년도 호주 화상교육 실시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교장 고철수)는 지난 3일(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의 Bega High School의 2학년 학생들(23명)과 함께 교내 정구 동아리 ‘글로벌

‘전남 글로벌 미래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

리(글로벌 리더스) 학생(15명)이 화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남 글로벌 미래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최첨단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영어권 문화와 교류하며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1년동안 월 1회, 총 8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호복 교감은 “호주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교과가 아니라 언어로 받아들이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표현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교류를 통해 폭넓은 관점을 갖추어 정명의 미래 인

재로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이번달에 양국의 학생들은 ‘호주와 한국의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실태와 문제점’에 관해 열린 토론을 나누며 각국의 소셜 미디어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나누고 질문하였다. 특히, 양국의 학생 모두 소셜 미디어로 인해 대두된 사회 문제(베너드립 챌린지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소셜 미디어의 사용 제한 필요성에 관해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며 유의미한 문화 교류를 나누었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기자

화순교육청, 초등돌봄 운영 점검 실시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은 학교지원센터 주관으로 2주간 화순 관내 초등돌봄(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화순지역은 모든 초등학교(16교)에서 초등돌봄(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며, 초1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화순지역은 돌봄을 희망하는 관내 1·2학년 학생을 아침·오후돌봄(돌봄)교실, 연계돌봄교실을 통해 수용하였으며, 저녁돌봄(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석·간식 및 프로그



램 등을 지원하며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전남교육청, 202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66교 지정 운영

다문화 감수성 제고·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일 202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66교(유 30원, 초 25교, 중 6교, 고 5교)를 지정했다.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교내의 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등 다문화교육 요소를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기초학력 향상,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한국어 및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교내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들과 연계·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202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관리자 및 담당자들은 2일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서 개정 누리과정,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문화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언어적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클래스팅 알림장 번역서비스를 직접 활용해보기도 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외에도 다문화 학생 강점 개발과 교육공공체제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 모든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교육 포럼 ▲ 다문화학생 배움 채움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중심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변용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